

[기고] ‘안전경영’이라는 정상에 오르는 일

경북지역본부 이동규 본부장(경북일보, 2022.3.30.)



주말 아침 집 근처에 있는 야트막한 산을 오르다가 큰코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 해발 400m 남짓의 비교적 낮은 높이에 어린이 등산로까지 마련되어 있어 등산하기에 수월하다는 평만 철석같이 믿고 올랐는데 산중턱 이후로는 숨 가쁜 깔딱 고개가 이어졌다. 낭떠러지 옆 안전 로프를 아슬아슬하게 잡고 올라가다가 손과 무릎 여기저기를 긁히기도 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등산객 몇 분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뒤이어 올라오던 기억이 난다.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라 겨우 숨을 고르다 보니 이 날 몇 번의 실수가 우리의 산업현장을 그대로 빗대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은 경영목표라는 정상에 금방이라도 오르게 될 것을 꿈꾸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기대감만을 가지고 등산을 시작한다면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영상의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뿐더러 사고를 겪어 다치게 되는 일도 발생한다. 정상 등반을 포기한 채 서둘러 하산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등산을 하며 다행이었던 것은 산 곳곳에 설치된 이정표와 대피소, 비상 시 활용할 연락 표지판을 확인했던 것이다. 놀라웠던 점은 물건을 옮기기도 힘겨워 보이는 깔딱 고개에 아주 튼튼한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런 시설물들이 없었더라면 더욱 갈피를 못 잡고 해맸을 등산객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해 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 순간이었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도 기업들이 경영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정부 부처에서 각자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재해 원인조사, 위험현장 안전점검, 직업병 예방 지원,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보건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두 달여 전('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산업현장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기업가들 중에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등산로에 툭 튀어 나온 나무뿌리 마냥 길을 험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편하고 수월한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들을 뿌리째 모조리 뽑아 버린다면 작은 비에도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민둥산이 되고야 말 것이다. 간혹 튀어 나온 뿌리가 있더라도 그 나무 하나 하나가 모여 흙을 다잡아 주고 건강한 산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안전보건관계법령 또한 산업현장을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뿌리로 여겨야 한다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828명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전국의 산업현장 어디선가 무너질 수도 있는 누군가의 태산 같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정상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려운 길, 높은 산이라도 등산객을 도와주는 이정표와 안전 시설물이 있다. 그 역할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3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본은 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https://media.kosha.or.kr>)를 통해 4월 초부터 사업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 산업재해예방시설 마련을 위한 융자금·보조금 지급 사업 등도 운영 중이니 전국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으로 언제라도 편히 문의하면 된다.

장기화된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에 더해 새로운 법까지 등장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정부·공공기관이 든든한 등산 장비로,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서 계단으로, 사고 재해예방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들어주는 세르파로 함께 할 것이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이다. 이제는 안전이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시대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그에 따른 법과 제도의 개정,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이 하나로 모여 안전보건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게 노·사·민·정이 다함께 발맞춰 묵묵히 산을 오르다 보면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 다발하는 사망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